



라면조리기 '라조' 다윈

# 3분이면 끝 ... 한강 편의점 접수한 '라면 자판기'

라면은 치킨과 함께 여름철 한강 공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다. 편의점에 있는 기계로 라면을 끓이는 장면이 예능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컵라면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봉지라면을 전용 용기에 끓여 먹는 방식을 두고 '라면 자판기' '라면 조리기' 등으로 부른다.

한강 공원과 편의점 등에서 볼 수 있는 라면 조리기(라면 자판기)를 만드는 국내 업체는 5개 이상 된다. 이상철 다윈 대표가 개발한 라면 조리기인 '라조(LAZO)'도 그중 하나다. 이 대표는 "2010년경 일본에서 본 라면 자판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품을 개발했다"며 "위생 문제를 염려하는 소비자 성향을 고려해 끓여서 나오는 자판기 형식이 아니라 조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라면 조리기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누구나 쉽게 끓여 먹도록 설계  
라조는 봉지라면 즉석 조리기다. 종이와 알루미늄 등을 활용해 만든 특수 용기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기계 위에 올려 두면 라면을 끓일 수 있다. 버튼을 눌러 시간과 물의 양만 조절하면 된다. 평균 조리 시간은 3분30초 내외로 가스레인지가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짧다. 이 대표는 "80도 정도를 유지하는 따뜻한 물이 조리기에서 나와 조리를 시작한다"며 "종이 내부에 코팅된 알루미늄이 인덕션에 반응해 물을 빠르게 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기와 인덕션이 하나로 결합한 형태다.

경쟁사 제품보다 작은 게 다윈 제품의 강점이다. 공간이 좁은 편의점 등에서 선호도가 높다. 언뜻 보면 일반 정수기로 착



이상철 다윈 대표가 즉석조리기 '라조'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김기만 기자

가스레인지보다 조리시간 짧아 크기 작아 편의점 등에 적합 빠른 AS ... 27개 서비스센터

대만 및 동남아시아 수출 IoT 제품 연내 출시

각할 만큼 디자인에도 신경 썼다.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전국 편의점, PC방 등에 2000대 이상의 라조가 설치돼 있다. 이

대표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기 힘들고 시원이나 상업 시설에서도 라조를 활용해 끓여 먹는 조리기가 가능하다"며 "올 상반기 설치 대수 3000대를 넘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품 보급 초기부터 안전성과 사후 관리 등에 공을 들였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점주들을 위해 애프터 서비스(AS)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공장 접수부터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업 초기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서비스 센터를 전국 27개까지 늘렸다.

다윈	
설립	2010년 10월
위치	전북 군산시 오석도동
주요제품	즉석조리기
특징	라면과 같은 즉석식품을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음

◆통신 가능한 똑똑한 조리기로 진화  
라조는 라면 소비가 많은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1000대 이상씩 수출했다. 일본과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동아시아는 끓여 먹거나 면을 소재료 요리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편의점이 발달한 지역부터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WINA)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소비량은 76.1개(2016년 기준)로 세계 1위다. 2위는 베트남(52.6개), 3위는 인도네시아(50.5개)였다.

라면을 비롯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기회다. 다윈은 여러 식품 업체들과 협력해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군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전용 라볶이 제품도 출시한다. 이 대표는 "터치 스크린과 통신칩을 장착한 신제품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며 "전자레인지처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i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선거 후유증·힘빠진 중앙회·52시간제 ...

# 김기문 중앙회장 앞에 놓인 난제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사진)이 앞으로 4년간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끌게 됐다. 그의 앞에는 난제가 수도무적이다.



가깝게는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 회장이 당선 인사말에서 "선거로 갈라진 찢어진 중앙회는 화합으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중앙회장 선거는 과거에도 후유증을 남겼다. 소송 등으로 1-2년은 회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에도 각종 흑색선전과 금품살포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랐다.

중앙회 주변에서는 김 회장이 각 후보들을 만나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김 회장이 회장·부회장(25명)·이사(30명)로 구성된 중앙회 이사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거 당일 부회장 12명과 이사 20명을 선출해 부회장 13명과 이사 10명을 이사회의에 추가할 수 있다. 한 이사는 "각 후보 핵심 참모들에게 부회장이나 이사 자리를 줌으로써 화합의 매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박성택 회장이 실시한 주요 정책을 이어가고, 그가 중용한 사람을 계속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청렴한 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의 정책이다. 2007년 처음 중앙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전임 회장이 중용한 중앙회 간부를 적극 활용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가 선거 기간 주장한 강력한 중앙회 재건도 말처럼 쉽지는 않다. 중소기업인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와 호흡이 맞았을 때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 그렇다고 소상공인연합회처럼 식별하고 투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회장이 "경제 현안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특단의 대책을 찾는 것도, 이를 관철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또 대부분의 정책이 입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야당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당장의 과제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현안이 된 주 52시간 근무제다. 52시간 근무제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이 규모 기업들 중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 기업은 몇 안 된다는 게 기업인들 하소연이다.

중앙회의 근간인 협동조합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도 해야 한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고 개별 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협동조합 차원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협동조합 관계자들 주장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경산·오송에 새로운 산업단지 들어선다

경북 경산과 충북 오송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30만㎡ 규모 오송바이오폴리스와 240만㎡ 규모 경북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오송은 2019년, 경산은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산단공이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정주시 오송읍 일원에 조성 중인 오송바이오폴리스(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제약 및 화장품·전자제품·기계장비와 연구 시설을 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충북바이오 산업네트워크의 중심 거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산시 진랑읍에 조성 중인 경산4일반산업단지는 인근의 경산1·2·3산업단지

(330여 개사 입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자동차·정밀기기·신소재 및 탄소융복합 산업을 주요 유치 업종으로 삼고 있다. 경산시는 탄소융복합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이 지역에 탄소융복합설계서비스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한 바 있다. 산단공 관계자는 "경산4일반은 경부고속도로, 동대구역, 대구국제공항과 가깝고 대구·경산 인근에 10개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어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산단공은 이와 함께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와 충청리 일원에 조성한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중 미분양된 5만 7000㎡의 분양도 하고 있다. 유치 업종은 식품, 의료기기, 화학, 금속, 전자부품, 자동차 제조업 등이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3·1운동 100주년'인데 태극기는 안팔리고 ...

태극기 70% 생산하는 동산기획

태극기 제조업체 동산기획의 김진수 대표(51)는 2002년 가장 행복했다. 월드컵으로 시청 앞 광장이 태극기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자체 생산능력도 감당할 수 없어 인근 봉제공장을 뛰어다니며 부탁해 수량을 겨우 맞췄다. 그는 "2002년 태극기 물결은 동산기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김 대표는 1980년대 말 태극기 사업을 시작했다. 보훈처에 다니던 지인의 말이 계기가 됐다. "국내에 태극기를 제



동산기획 태극기 생산 공장.

대로 만드는 업체가 없어 블루오션"이란 말에 솔깃했다. 처음엔 사업성만 보고 시작했지만 점점 애국심과 자부심이 생겨났다. 초기엔 태극기만 만들다가 설비를 늘려 깃대와 깃봉도 직접 생

산했다. 최근엔 5억원을 투자해 자동화 생산설비도 갖췄다. 김 대표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 가운데 태극기 문양이 가장 복잡한 편"이라며 "사람 손으로 재단과 봉제를 하면 실수가 종종 생겨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동산기획이 추정하는 국내 태극기 시장 규모는 연 100억~12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약 70%를 동산기획이 생산한다. 국군과 관공서 등이 주요 고객이다. 김 대표는 "최근 태극기의 민간 수요가 줄어들 걱정"이라고 했다. 국경일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복 70주년

이었던 2015년엔 8월 15일 광복절 전까지 200만 장 이상의 태극기를 팔았다. 광복절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부족함이 없도록 생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누적 판매량이 20만 장에 그쳤다. 김 대표는 "과거 판매 속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태극기를 게양하지는 정부의 홍보물이나 캠페인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의 태극기 게양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35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 Meet The Future

2019. 3. 14 - 17

COEX, Seoul (10am - 6pm)

제35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 "의료 세계의 미래를 만나다"

### AI 진단시스템, 로봇수술기기, 스마트 병원시스템 등 최첨단 의료기자재 전시!

- 36개국 1,403개사의 최첨단 의료기자재 전시
- 재활로봇, 3D프린팅, 로봇수술기기, AI 진단기기 등 최첨단 장비 출품
- KOTRA 초청 전세계 60개국 260개사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회 개최 [GMPE 2019]
- COEX 1,3층 전관[A,B,C,D,E,GB,로비] 40,500sqm 전시규모
-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 관광컨퍼런스 MEDICAL KOREA 와 동 기간 개최
- 최첨단 의료 부품 및 소재 전시회 MedicomteK 과 동시 개최
- 80개국 80,000명 [해외바이어 3,700명] 참관
- 180여 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세미나를 통한 최신 의료정보 제공

주최 한국이엔엑스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한국의료기기가산업협회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특별시 | KOTRA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한국여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 | 한국의료기기유동협회 | 대한의공협회 | 의학신문사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특별시 | kotra | KOTRA | 한국이엔엑스 | ufi | Accoriva | 한국이엔엑스 Tel. 02-551-0102

**경품 이벤트**  
최고급 인마의자 (매일 1대)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관객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전등록 안내**  
2019년 3월 12일까지 www.KIMES.kr 에서 사전등록하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